

## 나주시 산포면, 쓰레기 투기장을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 환경 개선



방치되고 있던 불법 쓰레기를 정리하고 조성된 소공원에 철쭉을 식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 산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종주)가 지역 내 해묵은 과제였던 불법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을 아름다운 소공원으로 재탄생시키며 깨끗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산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나주시 주민자치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26 산포면 덕례리 지식전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덕례리 지식전변 인근의 유흥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주 산포면주

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위원들과 산포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깨끗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소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방치되고 있던 불법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철쭉 4000주를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단순히 소공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공원 조성 사업은 나주시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하천부지 330㎡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추진되었다. /서선택 기자

담양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원탁토론회

화순 청풍초, 국제영화제 3관왕 쾌거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지난 15일 군청 면양정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담양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담양군 복지정책의 방향과 세부사업을 정하는 중기 계획이다.

군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복지 현안을 공유하고, 담양 여건에 맞는 핵심 과제와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날 원탁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총괄기획반, 복지사업반, 보건사업반, 지역인프라반 등 분야별 실무반이 참여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전교생 30명의 작은 시골 학교인 청풍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한 가운데, 임지락 화순군수가 16일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계를 놀라게 한 이번 작품은 청풍초등학교 전교생이 함께 제작한 50분 분량의 성장드라마 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감독 박기복)'이다.

영화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손녀가 화순의 역사적 상징인 탄광을 탐방하며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담아내 깊은 감동을 전한다.

/남호경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영광군 농업용저수지 35개소 위험안내 현수막 설치



영광군이 농업용저수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여름철을 맞아 농업용저수지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업용저수지 위험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에 나섰다.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

지는 총 154개소로, 저수지별 안전시설과 위험안내판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안내판이 없거나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다.

특히 올해 확보된 예산만으로 전체 시설을 일시에 정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험안내판 정비가 필요한 저수지 가운데 주민과 낚시객의 출입이 잦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3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위험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용저수지 위험안내판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예찰을 실시하겠다"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험요인을 상시 살피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농업용저수지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저수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진기자

## 장성 국립숲체원, 산불대응인력 힐링캠프 성료

의성군자원봉사센터 연계 1박2일 캠프 운영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직무대행 황성태) 국립장성숲체원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의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경북지역 산불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마음건강회복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 산불 현장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신체적·심리적 피로가 누적된 산불 대응인력의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의성군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산불 진화 및 복구 활동에 동참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의미를 더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숲이 가진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한 '숲테라피', '아로마테라피' ▲소통과 협동심을 기르는 '너랑나랑카르타'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은 "국



산불대응인력을 위한 '국민마음건강회복 캠프' 운영 모습

/장성군 제공

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산불대응인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마음건강 회복"이라며 "앞으로도 의성군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립장성숲체원은 앞으로도 재난 대응인력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숲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마음 회복 지원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김재섭기자

#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